

2022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2.20. 11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10/10	3	-	13	○		

o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문해주 위원
정의식 위원, 이현숙 위원, 유환익 위원,
정경모 위원, 김희중 위원, 김세한 위원, 천경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추승호 보도본부장,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한승호 심의실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0	-	-	2	12	-	12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2	-	-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보도화면의 경우 현장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지만 일부 '인터넷 신문'의 경우 화면이 불안정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간간히 비쳐져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 동영상은 서비스 운영원칙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이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자막으로 재생을 막아놓음, 연합뉴스TV의 경우 충격적인 화면은 없었지만,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자이크 처리한 가운데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길바닥에 누워있고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보여 일부 불편한 점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문해주위원)</p>	<p>현장 화면이 좀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는 부분은 저희도 하루가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영상들은 삭제를 많이 했습니다. 불러 처리를 하거나 삭제를 해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p> <p><22.11월 조치></p>	<p>'22.11월</p>
<p>보도</p>	<p>11/1 요즘 이태원 참사로 특집 방송을 하는 도중, 중간 중간 하는 광고 중에, '보람상조' 광고를 접하며, 꼭 이 시점에 해야 하는 지, 나만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들었습니다. 숙된 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인지, 상조회사와의 광고 약속 때문일지라도, 광고주에 양해를 구하고 상황이 좀 진정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마음 한편에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의식 위원)</p>	<p>방송 광고 계획이라는 게 보통 40일 이상 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일엔 아마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주에게 양해를 구하면 광고를 미룰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광고 담당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음</p> <p><22.11월 조치></p>	<p>'22.11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p>연합뉴스TV가 안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점들은 인력부족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조속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합뉴스TV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하겠다. 또한 연합뉴스TV의 소유구조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보도채널은 채널의 특성상 다른 방송에 비해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익적 이익에 더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만약 보도채널이 상업화되면 보도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뉴스의 상업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연합뉴스TV의 소유구조는 지금과 같이 공영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와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보도채널로서의 위상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권혁남위원장)</p>	<p>인력 부족이 연합뉴스TV의 보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영진이 세워놓은 3개년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충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인력충원의 기반은 자본잠식이 먼저 해소돼야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익유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거나 여타 방법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보도채널도 상법상 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특수한 성격의 기업이자 언론매체입니다. 연합뉴스TV는 창사 10년을 거치는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여러 문제점과 갈등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합뉴스만큼 보도채널의 운영에 적합한 공공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금의 도전을 함께 극복해서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훌륭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양사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	○		
보도	<p>11. 25 <[단독] 신춘서 모녀 극단적 선택...>"전기료 5개월 밀려"> 보도를 통해 30대 딸과 어머니는 생활고를</p>	<p>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한 보도를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으나 주소지가 이사 오기 전 집으로 되어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11. 26 반복되는 편모 가정의 비극의 원인에 대한 추가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 인식 확산에 노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절반 이상 가계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비율은 89.3%에 달하여 남성에 의존하는 가계 경제 구조의 특성으로 남성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해 수입원이 사라지면 '모녀'나 '모자'는 비슷한 비극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여성 가장이 스스로 돈을 벌어보려 해도,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에 따른 노동시장 재진입이 더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혀 이런 것들로 쉽게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 위험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편모 가정에서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편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취약 가정 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지원정책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편모 가정의 비극을 언론에서 단순 사건보도에 그치지 않고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찾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박찬재부위원장)</p>				
보도	<p>지난 8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후 12월 29일 최종 성공여부를</p>	<p>보도의 난이도, 보도 여건 등으로 인해 시청자 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여 우주개발(달탐사, 화성탐사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연합뉴스TV 보도)하였으며, 내년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준비하는 등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고 우주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연말연시를 기해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방영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합뉴스TV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보도, 정확한 보도, 분석 보도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과학기술 관련 뉴스는 우주, 원자력, 반도체 등 국내외적인 대형 이슈가 있는 분야에서는 보도의 빈도와 비중도 함께 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뉴스는 늘 부족함이 많아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해주위원)</p>	<p>는 못했으나 앞으로 내년 1분기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비롯해, 아르테미스 계획, 원전과 양자 기술 등 주요 과학기술 이슈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보도를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p>			
<p>보도</p>	<p>11/20, 전기차 150만대, 1년동안 74% 증가라는 보도를 보고, 친환경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면,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서 쉽게 충전할 수 있을꺼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보도로 전기차 충전소와 충전 시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보도가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고, 또 수소차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니, 같이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정의식위원)</p>	<p>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확충계획이나 잦은 고장 등의 문제는 전기차 상용화 초기 시점부터 여러차례 다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주요 업무용 빌딩과 관공서는 물론, 아파트 주차장, 편의점 등지에도 설치된 곳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에 맞춰 충전은 물론, 정비 편의성과 내구성 등의 문제를 다뤄볼 계획입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출근길 인터뷰]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 (12/12) 한동안 남성 역차별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던 경찰 채용 체력검사가 바뀐다는 소식을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 다루어서 좋았습니다. 일선 경찰이나 미디어 속의 경찰을 주로 상상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 힘이 있어야 한다며 여성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경찰은 행정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에게 체력 시험에서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 채용되는 경찰의 성비는 여성이 10% 내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왕 논란이 되었던 경찰 채용 체력검사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런 점도 같이 다루어 실제로 여성에게 특혜를 준 것인지 등도 함께 다루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출근길인터뷰>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인터뷰 원고를 작성할 때 이슈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근길인터뷰 콘셉트 자체가 5분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하지만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사안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보도 아쉬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논란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도 제가 보지 못한 것인지 관련 기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엔 지속가능한 성장목표에서 명시되어있는 성 재 생산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 세계적인 교육 목표인 포용과 민주주의 실현에 부합하지 못한 내용으로 통과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도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교육청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동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관련 내용은 추후에 후속 및 기획 특집 등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셨으면 합니다.(이현숙위원)				
기타	“연합뉴스TV” 사명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을 좀더 간단하고 발음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명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연합뉴스TV”는 속보성 뉴스매체인 연합뉴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적 측면에서의 의미보다는 간명한 명칭, 발음하기 쉬운 명칭이 더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보여서 2~3개 단어, 영문자로 된 명칭으로 바꾸어 보는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임(유환익위원)	사명에 대해서는 그간 개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사명은 2011년 12월 개국 당시 공모를 통해 ‘뉴스Y’(newsY)로 출발, 2015년 1월부터 ‘연합뉴스TV’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당시 YTN과의 차별화, 채널명과 법인명 통일 등을 고려해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		
보도	킬러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면 특별한 특징이 없이 이런저런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다소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연합뉴스TV만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해보입니다. 유명 앵커를 메인앵커로 초빙하거나, 뉴스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코너를 개설하거나, 기타 타방송과 차이를 낼 수 있는 전달방식 등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유환익위원)	킬러콘텐츠에 대해선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디어 뿐 아니라 인력과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작업인 만큼 저희 여건에서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여력을 감안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늦지 않게 시도해보겠습니다.	○		
보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 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고인(古人)과 대화를 하며	시청자들이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 담당 기자들이 기사 발굴에 많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생각에 잠기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나는 특히 고서(古書)와 고화(古畵)를 좋아한다. 지난달은 간송박물관, 국립 박물관, '중국 전람회' 등에서 고서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시공을 초월하여 '고인의 멋과 맛'에 취할 수 있었던 즐거운 날이었다. (중략) 충남 태안 앞바다에 침몰해 있는 고려시대 배들로부터 건져 올린 수만 점의 유물 중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들만 모아서 처음으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고려청자로 만든 사자 모양의 향로, 두꺼비 모양의 청자 벼루, 아름다운 곡선비의 매병 등 다양한 모양의 청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고인(古人)과의 대화'를 통한 휴식과 재충전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가운데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충만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정경모위원)</p>	<p>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나열형 보도가 되지 않기 위해 취재기자가 여러 콘텐츠를 접하며 다양한 보도 방식 또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역사가 남긴 수많은 유물과 우리 사회가 생산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친절한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보도	<p>주거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문제 지적 '바람직', 지난 14일자 사회 뉴스 중 '한파 속 취약 가정 겨우살이...냉골 같은 방'은 주거 취약 가구 아이들의 난방 문제를 기사화한 것임. 내용은 요즘 올들어 최강의 한파 속에 냉골에서 지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주거 현장을 취재하고, 급등한 난방비 걱정예 제대로 된 난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부</p>	<p>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강화해가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인터뷰해 내보냄으로써 정부 등의 지원이 절실함을 시사하였음. 기사에서는 한 발 더 나가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불과 한 달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짐을 분명하게 지적해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한 주거취약 아동·청소년 가구가 11%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 확대가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기사로 보임.(김희중위원)</p>				
<p>보도</p>	<p><'주 52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시민들 생각은> 기사 편집 아쉬움, 12월 14일 저녁 보도된 <'주 52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시민들 생각은> 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당 근로가능시간 확대 방안'과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노동 관련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안의 내용 중 한 주마다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등 통틀어서 계산하자는 안에 대한 시민 반응을 취재한 보도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기사 제목이 '시민들 생각은'이라고 잡힌 만큼 기사 제목을 보고 기사를 클릭해서 확인한 시청자들은 여러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의 이런 저런 의견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사를 열어봤을 텐데, 정작 뉴스 내용 중에 인터뷰가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 적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총 2분 6초 분량의 기사는 앵커 멘트-취재기자 멘트-시민 1 인터뷰-취재 기자 멘트-시민 2 인터뷰-취재기자 멘트-시민 3 인터</p>	<p>주52시간제 개편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강화하고 심층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뷰의 순으로 편집됐는데, 3명의 시민 인터뷰 분량을 전부 합쳐도 채 30초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취재 기자의 멘트를 줄이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구성하든가, 아니면 기사 제목을 다르게 잡던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김세한위원)</p>				
<p>보도</p>	<p>2022-12-04 음주운전에 하굣길 초등생 사망...구속영장 신청,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 소재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9살 남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2월초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음주차에 숨진 사고입니다. 타 방송의 뉴스보다 조금 더 사건에 대한 방송을 해주어서 사건의 심각성을 시청자가 느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경숙위원)</p>	<p>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가겠습니다.</p>	○		